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전법기도 법회 및 동지 기도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2009 년을 되돌아 보는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0 시- 오후 2 시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Class Room # 5
1 부: 법회 ; 2 부 송년 잔치 및 성불도 놀이

새벽기도: 아침 6 시 30 분-7 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야간 파수꾼에겐
밤이 얼마나 길까!
여행에 지친 사람에겐
남은 길이 얼마나 멀까!
죽음으로 끝나는 생에서
부처님 길 찾지 못하고
헤메는 우매한 사람에겐
인생은얼마나 길까!

How long is the night to the watchman; how long is the road to the weary; how long is the wandering of lives ending in death for the fool who cannot find the path!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9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종정예하 도림법전 대종사 기축년 동안거 결제법어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봉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길로써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 하나의 길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에 건봉선사는 주장자를 집어 들고는 공중에 선 한 줄을 긋고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건봉선사에게 열반의 경지를 향한 길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운문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때 마침 운문선사는 들고 있던 부채를 위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부채는 뛰어오르면 33 천의 천상까지 올라가 제석천의 콧구멍에 붙고, 동해에 있는 잉어를 한방 치면 곧바로 뛰어올라 갑자기 그릇에 담긴 물을 뒤엎은 것처럼 비를 쏟아 붓는다.”

사실 민물에 사는 잉어가 바다에 있을 까닭이 없는 것처럼 열반의 한 길을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원용무애한 시방세계 부처님의 열반 경지를 체득하는 길은 사랑분별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건봉선사는 주장자로서 허공에 하나의 선을 긋고서 그러한 경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열반의 길에서 주장자를 수 백 번 든다고 해도 캄캄한 남자는 여전히 그렇게 수 백 번 같은 길을 캄캄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선지식의 이런 고준한 법문이 푸른 하늘의 밝은 해와 같으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렵다거나 혹은 쉽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망상을 지으니 비록 이진접을 지나더라도 깨달을 기약을 없을 것입니다.

산승에게 만약 열반문의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장 방망이로 등줄기를 때려줄 것입니다. 또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무섭게 그리고 산이 떠나갈 듯한 할을 해서 내쫓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건봉과 운문의 지나친 자비가 결국 그 어리석은 남자의 눈을 더욱 가리게 했으니 두 종장의 허물이 참으로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결제대중들은 두 선지식의 뜻만 궁구할지언정 두 노인네의 말끝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발 밑에서 열반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열반길은 화두를 열심히 제대로 참구할 때만이 그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득의즉반정도이귀가(得意則返正道而歸家)하고
심언즉탕사도이전원(尋言則蕩邪途而轉遠)이니라
뜻을 얻으면 바른 길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을 찾으면 샅된 길로 흘러 더욱 멀어지느니라

2553(2009)년 동안거 결제일에

덧붙임: 열반이란 번뇌가 없어진 경지를 말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경지를 향해 가는 지름길을 찾는 일은 누구나 궁금하게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당나라 때 동산양계 선사의 법을 이은 건봉선사에게도 그 물음을 가지고 오는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말로써 설명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공에 일획을 그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학문에도 왕도가 없듯이 수행에도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그 질문할 시간까지도 아껴 공부한다면 이미 지름길에 들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간 운문선사도 부채를 높이 들어보일 뿐입니다. 그 역시 그 방법 외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까닭입니다. 사실 알고보면 그 주장자와 부채를 들어보인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자비심으로 설명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비심이 오히려 병이 되어 어리석은 질문을 더욱 어리석게 자기나름대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묻지말고 스스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길만이 모든 의문을 제대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결제법문의 요지라고 하겠습니다.

불교 '세계 최고의 종교' 영예

7월 15일, 제네바 트리뷴지

제네바에 본부를 둔 '종교와 여성발전을 위한 국제 연합'(ICARUS)는 '금년의 세계 최고의 종교'로 '불교'를 선정하였다. 이 상은 200 명이 넘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국제 원탁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ICARUS 회원중에 불교 지도자들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보다 불교를 선호했다는 점이다. 이 중 투표에 참여한 4 명의 소감을 인용해본다.

ICARUS 연구소장이 조나힐트씨는 “불교가 세계 최고 종교로 뽑힌것은 더 이상 놀랄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타 종교들이 소위 '신'이 무슨 실수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옷장속에 총을 감추고 있는듯 보이는 와중에서도 불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군대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불교신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군대'는 모병제가 아닌 지원병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역자 주)

불자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 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벨페스트 출신 천주교측 인사인 테드 오쇼니시 신부는 “우리가 소위 ‘신의 뜻’으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성경에 나온 ‘사랑’과 그같은 ‘신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나는 (그러한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불교쪽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 지도자인 탈 빈 와사드는 “나는 신심깊은 무슬림이지만, 분노와 폭력이 개인 차원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종교의 이름으로 표현되어진 수많은 경우를 보아왔다. 불교도들은 분노를 해결하는 법을 알고있다.” 파키스탄의 무슬림을 대표해서 ICARUS 에서 투표한 빈 와사드는 “사실 내 친한 친구중에는 불교도들이 많다” 라고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온 랍비 슈무엘 와서스타인은 “물론 나는 유대교를 사랑하고 그것이 세계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난 93 년부터 나는 민얀(유대교의 일일기도)을 하기전에 매일 위파사나 명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교를)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ICARUS 측은 이 상을 수여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불자들은 하나같이 그 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얀마 불교단체 역시 수상을 거절했는데, 이 단체의 반뜨 구라타한타 스님은 “불교를 선정해주신 여러분의 결정이 고맙습니다만, 우리는 이 상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모든 존재에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ICARUS 측은 말한다. “우리들은 이 상을 받을 불교단체나 불자를 계속 찾아볼 겁니다. 찾게되면 알려드리지요”

Subject: Buddhism won "The Best Religion In The World Award"

Buddhism won “The Best Religion In The World” award 15 Jul 2009, Tribune de Geneve

The Geneva-based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Advancement of Religious and Spirituality (ICARUS) has bestowed "The Best Religion In the World" award this year on the Buddhist Community.

This special award was voted on by an international round table of more than 200 religious leaders from every part of the spiritual spectrum. It was fascinating to note that many religious leaders voted for Buddhism rather than their own religion although Buddhists actually make up a tiny minority of ICARUS membership. Here are the comments by four voting members:

Jonna Hult, Director of Research for ICARUS said "It wasn't a surprise to me that Buddhism won Best Religion in the World, because we could find literally not one single instance of a war fought in the name of Buddhism, in contrast to every other religion that seems to keep a gun in the closet just in case God makes a mistake. We were hard pressed to even find a Buddhist that had ever been in an army. These people practice what they preach to an extent we simply could not document with any other spiritual tradition."

A Catholic Priest, Father Ted O'Shaughnessy said from Belfast , "As much as I love the Catholic Church, it has always bothered me to no end that we preach love in our scripture yet then claim to know God's will when it comes to killing other humans. For that reason, I did have to cast my vote for the Buddhists."

A Muslim Cleric Tal Bin Wassad agreed from Pakistan via his translator. "While I am a devout Muslim, I can see how much anger and bloodshed is channeled into religious expression rather than dealt with on a personal level. The Buddhists have that figured out." Bin Wassad, the ICARUS voting member for Pakistan 's Muslim community continued, "In fact, some of my best friends are Buddhist."

And Rabbi Shmuel Wasserstein said from Jerusalem, "Of course, I love Judaism, and I think it's the greatest religion in the world. But to be honest, I've been practicing Vipassana meditation every day before minyan (daily Jewish prayer) since 1993. So I get it."

However, there was one snag - ICARUS couldn't find anyone to give the award to. All the Buddhists they called kept saying they didn't want the award.

When asked why the Burmese Buddhist community refused the award, Buddhist monk Bhante Ghurata Hanta said from Burma, "We are grateful for the acknowledgement, but we give this award to all humanity, for Buddha nature lies within each of us." Groehlichen went on to say "We're going to keep calling around until we find a Buddhist who will accept it. We'll let you know when we do."

"空, 이해만해도 달라질 수 있다"

고우스님, 백양사 야단법석서 강조

21 일 입재한 백양사 야단법석은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됐다.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에 대해 설한 고우스님은 공(空)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공을 제대로 이해하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첫째는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고, 셋째는 어디를 가든 자주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뇌를 느끼는 가운데 하나가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예전에 스스로를 얼마나 구박했든지, 폐결핵까지 걸린 적이 있는데 몹쓸 병에 걸려서도 부모랑 주변 사람을 원망하는 일을 멈추지 못했다”며 “우리가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공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하게 된다”며 “공을 제대로 이해하면,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 이데올로기, 종교도 초월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교만 안해도 우리가 훨씬 행복하게 살고, 마음도 안정되고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은, 같은 종교 아니어서, 같은 민족 아니어서, 생각이 달라서 이다. 스님은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소통으로 꼽으며, 공을 이해하면 소통이 된다고 역설했다. “현 대통령이 소통에 대해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소통은 일방소통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따라달라는 것”이라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쌍방 소통”이라고 부연했다. 성철스님은 이것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표현했다. 형상으로 보면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다. 형상을 가지고는 소통이 될 수 없지만, 본질을 보면 그렇지 않다. 스님은 “지금 형상만 봐서 서로 싸우는 것”이라며 “존재 원리에서 보지 못하는 본질, 즉 공을 보고 나면 산과 물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산이 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네가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고, 산과 물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의식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또 스님은 “공에 대한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중놀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다”며 “내 스스로도 옛날에 비해 당당해졌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옛날에는 남과 비교하면서 소극적이고 위축됐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당당해질 수 있었다는 것. 이와 함께 어디를 가든 자주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고우스님은 “공을 체험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이해만 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0%의 지혜가 완성돼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도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50%이해하면 그만큼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만도 굉장한 일”이라며 “10%든 20%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한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 印-中 분쟁지 타왕 방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8일 인도-중국 간 영토분쟁 지역인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 타왕 방문길에 올랐다. PTI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600여 명의 현지 티베트 불교 승려들과 신도 수천 명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타왕에 도착했다. 현지 티베트 불교계의 초청을 받은 달라이 라마는 앞으로 일주일간 타왕에 머물면서 사흘간의 법회를 통해 신자들과 만나고 현지 병원 개원식 등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달라이 라마는 "나의 타왕 방문이 반중국적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는 종교적 가치와 평화, 조화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정치와 무관하다"고 최근 중국의 비난을 일축했다.

그는 또 "1959년 내가 중국에서 탈출했을 때 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주 약했다"며 "당시 중국은 내 뒤를 쫓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인도에 도착한 이후 그들은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타왕에는 달라이 라마를 보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수만명의 불교 신자들이 몰려들었다. 당국에 따르면 그를 보기 위해 모여든 신자 수는 2만 5천명에 달했고, 심지어 인근 부탄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닳새를 걸어온 순례객들도 있다. 달라이 라마를 면담하기 위해 인근에서 온 도르지 왕디는 "평생에 한 번 그를 볼 수 있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959년 반중국 봉기에 실패하고 타왕을 거쳐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는 과거에도 4차례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동안 인도는 달라이 라마의 타왕 방문을 허락해왔고 중국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라싸 유혈사태 이후 티베트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경 문제를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신경전이 극에 달한 가운데 달라이 라마의 타왕 방문은 인도-중국 양국은 물론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됐다. 달라이 라마의 타왕 방문이 자칫 양국 분쟁에서 인도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될 것을 우려한 중국은 지난 몇 달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실제로 달라이 라마는 최근 인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맥하른 선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인도-중국 간 영토분쟁 지역 중 하나인 타왕은 인도 영토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는 달라이 라마가 자신들의 '귀빈(honored guest)'으로 칭하면서 그의 타왕 방문이 정치와 무관한 종교적인 차원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반대를 물리쳤다. 특히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최근 태국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만나 달라이 라마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의 타왕 방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다만, 인도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외신들의 달라이 라마 타왕 방문 취재를 불허하는 것으로 나름 성의를 보였다. 제스처를 취했다.

달라이 라마 방문 타왕은 ?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문한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 타왕은 인도-중국 영토분쟁의 중심지이다. 인도와 부탄, 티베트 사이에 위치한 타왕은 시킴과 더불어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먼바(門巴)족이 세운 먼 왕국의 영토였으나 이후 티베트와 부탄 왕국에 분리 흡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타왕에는 1681년 5대 달라이 라마인 응가왕 룽상 가초의 지시로 대규모 사원이 세워지면서 티베트 불교가 뿌리를 내렸다. 심지어 타왕에서는 6대 달라이 라마인 찬강 가초가 배출되기도 했다. 덕분에 4만명에 육박하는 이 지역 주민 가운데는 먼바족 탁파족, 티베트 등 다양한 부족민들이 섞여 살지만 대부분 티베트 불교를 신봉한다.

평균 해발고도 3천 500m 면적 2천 85㎢의 타왕이 인도와 중국의 영토분쟁의 중심축이 된 것은 지난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도를 식민통치하던 영국은 티베트의 자치 인정과 중국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군대 파견 중단 등 내용을 담은 조정안 11 조 일명 '심라조약'을 제시했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중국의 반발 속에 영국의 회담 대표 맥마흔은 인도-티베트 국경지대에 임의의 국경선을 그어 제시하고, 중국을 배제한 채 이 국경선을 확정했다. 당시 그어진 '맥마흔 선'은 향후 인도와 중국 간 국경분쟁의 단초가 됐는데 이 맥마흔 선에 타왕은 인도 영토로 명시돼 있다. 국경선 획정에서 배제된 중국은 인도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의 9만㎢를 강점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인도와 국경분쟁이 첨예화되자 타왕을 자국 영토로 인정할 경우 나머지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어쨌든 맥마흔 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던 타왕은 1951년 인도군이 이 지역에서 중국인을 몰아내면서 확고한 인도의 영토가 됐다. 또 1962년 인도-중국 간 전쟁 당시 한때 중국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중국군이 자진 철군하면서 다시 인도 영토로 복원됐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2003년 타왕 방문 당시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는 인도 땅이지만 중국은 맥마흔 라인을 인정치 않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티베트 유혈사태 발생 이후인 지난 6월에는 인도 최대 힌두 일간지 '나바라트 타임스'와 인터뷰에서는 "심라조약에 명시된 맥마흔 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인도-중국 간 영토분쟁 지역 중 하나인 타왕은 인도 영토의 일부"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깊이 뿌리내리는 불교”...SF 한국일보

보이고는 있지만 인도불교의 명맥유지 대종은 불가촉천민들이다. 기독교의 땅 미국에서 불교는 성장주다. 기독교와 유대교에 이어 3대종교로 자리잡았다.

사원이나 선원의 숫자로 따져 세계에서 불교의 꽃이 가장 활발하게 혹은 다양하게 만발한 도시는 어디일까.

버마(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남방불교국이나 한국 중국 일본 등 북방불교국 어느 도시가 아니다. LA다. 300개가 넘는 사원과 선원이 LA권에 점재해 있다. 이런 현상을 분석해 논평이 최근 소수계 언론연합 뉴 아메리카

미디어(New America Media, NAM)의 온라인매체(www.newamericamedia.org)에서 머릿거사로 게재됐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DC, NY, LA에 지사를 둔 NAM은 미국각지 약 2,500개 소수계 언론이 가입된 비영리단체다. 베트남계인 앤드류 램(사진) 편집위원이 “미국에서 깊이 뿌리내리는 불교”라는 제목으로 쓴 이 논평은 지난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의 접견요청을 거부한 것과 국회의사당 각급학교 심지어 유대교당까지 워싱턴DC 어느곳이든 ‘문화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을 대비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달라이 라마의 대학가 순회강연에서 티벳깃발이 나누끼는 등 열띤 분위기 묘사도 곁들여진다.

램 위원은 이어 “20세기 후반에, 미국은 영리하게 해외진출을 했다, 미국의 이미지와 이데올로기와 상품들과 종교들을 현명하고도 열정적으로 해외에 마케팅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은 그 역효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거나 준비하지 못했다. 만일 미국화가 글로벌화의 큰 부분이라면 서구의 동양화 역시 그 현상의 또다른 이면”이라고 정의했다. 그 사례로 든 것이 미국내 불교확산이다.

“나는 그것을 우주의 교환법칙으로 받아들인다. 디즈니랜드가 홍콩과 도쿄에서 인기짱이라면 그 마술적 왕국의 심장부라 할 LA에 불교사원이 들어서는 것과 같다. 세계에서 가장 복합적인 불교도시는 아시아 어디에도 없고 바로 LA라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LA에는 불교사원과 선원이 300개 이상으로 불교의 모든 종파를 망라하고

있다.”

램 위원은 이와함께 “2008년 종교와 공공생활에 관한 Pew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여동안 불교는 미국에서 기독교 유대교 다음의 제3대 종교가 됐다”면서 “불교가 미국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중 하나가 지난달 중순 방송된 CNN의 다큐멘터리다. “담마 브라더스”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교도수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명상과 요가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과 워크샵들이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또 미국내 불교의 성장을 상징하는 또하나의 극적인 증거로 미군 역사상 최초의 불교 군중법사 파견을 거론했다. 오는 12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토마스 다이어 법사가 그 주인공이다. 예비역 해병대원인 그는 특히 남침례교단 목사에서 불교도 개종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례는 더욱 흥미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살라자르 vs. 부오노’ 소송도 관심사다. 모하비 국립공원에 세워진 십자가가 종교적 심불이나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소송의 쟁점이다. 공원관리공단측은 몇년 전 불탑을 세우겠다는 불교인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기독교 십자가는 받아들이고 불교심불은 왜 안된단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공공대지에 한 종교가 타종교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램 위원은 끝으로 “불교의 메시지는 내적 평화와 자비다. 진지한 수행자는 자신의 에고(자아)를 조복받음으로써 자신을 없애고 그림으로써 무명에 의해 생긴 환상을 넘어 실상을 보는 것을 겨냥한다” “궁극적 불교체험은 신도 아니요 자아도 아니다. ‘저기 밖’도 아니요 ‘여기 안’도 아니다. 수행자의 실존과 세계의 실존을 구분하는 것은 눈 뜨면(깨어나면) 사라지는 종이 한장 차이인 것이다. 모든 것-움-은 절대적 경외요 범열이다”는 등 깊은 불심을 드러낸 뒤 “두 대륙 간 연대가 깊어지면서, 즉 아시아 대륙에서 이민자들이 오고 담마가 모든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 우리는 많은 정신적 전통들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결론지었다. 다원주의 핵심은 상이(相異)를 인정하고 상생(相生)을 추구하는 것이다.

부처님 생애를 잘 몰라도 되나

- 생애공부는 최상의 수행 안내도는 출 재가자 모두 거울로 삼아야 -

문: 다른 종교에서는 가르침을 설하신 분들의 생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시하면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교육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몰라도 되는 것이지요

답: 불자가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부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가자나 재가자나 부처님의 일대기를 항상 가까이 하면서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서 드러나듯이 부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어려운 전문 경전은 가르치면서도 부처님의 생애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일대기는 성불이후의 교화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범문한 내용과 자비행이 대부분인 셈이니, 결코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에 최적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안내서인 셈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출가해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는 부처님의 전 생애를 교육받은 일이 없습니다. 스님들의 교학연구 과정에 부처님일대기는 교재로 채택하고 있질 않기 때문이지요. 어린 시절에 읽었던 부처님 일대기인 <팔상록>이 출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출가 후에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든 기록을 찾아 수없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 먼지를 뒤집어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는 부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지요. 모든 중생의 아버지인 모습도 만날 수 있고,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제시하는 모든 보살의 모습이 석가모니부처님의 분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시작되며, 경은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말씀하신 내용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내용이니만큼 중시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가르침만을 중시하는 공부를 하다보면 부처님의 인간적인 향기를 느끼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곧잘 다른 종교의 절대적 중심인 신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나 합니다.

경을 통해 공부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큰 범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열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경전의 내용은 좋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말들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르침 자체만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노라면, 자신이 끊임없이 변민했던 바로 그 갈등의 모습이 보이고, 그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의 노력도 전개되며, 수행과정에서 겪는 각종 문제도 나오고, 이윽고 깨달음의 범ゆる도 느껴지며, 한없이 펼쳐지는 부처님의 자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가르쳐 주는 교본은 바로 부처님의 일대기입니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애틀랜타 부다나라 모임 후기

안녕하세요 선각스님, 한국의 불교회 여러분, 그리고 St.Louis 와 Atlanta 부다나라 법우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러니까 11 월 25 일 수요일에는 여기 조지아텍에 있는 부다나라 법우님들과 불교신자들이 뜻을 합쳐 첫 조지아텍 불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이라 아직 구체적인 색깔을 띄지는 못하지만 불교에 대한 열정만은 마그마처럼 뜨겁기에 꾸준히 그리고 식지않고 이 모임이 잘 항해해 가리라하는데 저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혹은 2 주에 한번씩 모여서 가볍게 불교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친목을 더욱더 끈끈히 하기위해 항상 뒷풀이를 가지기로 했습니다.(사실 이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는 애틀랜타 부다나라 신도님들이 다들 모여서 14 개월동안 선각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불자님들이 잘 끝어온 이 애틀랜타 부다나라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매달 4 째주에 정기모임을 가져서 더욱더 불자님들과의 친목도 견고히 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다 함께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불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은 이러한 모임을 통해 우리 선각스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애틀랜타 불사가 부디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애틀랜타가 불국토가 되고 나아가 이 미국이 불국토가 되는데 크나큰 초석을 다지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얼굴도 모르는 한국에 계시는 불교회 회원님들에게 정말로 정말로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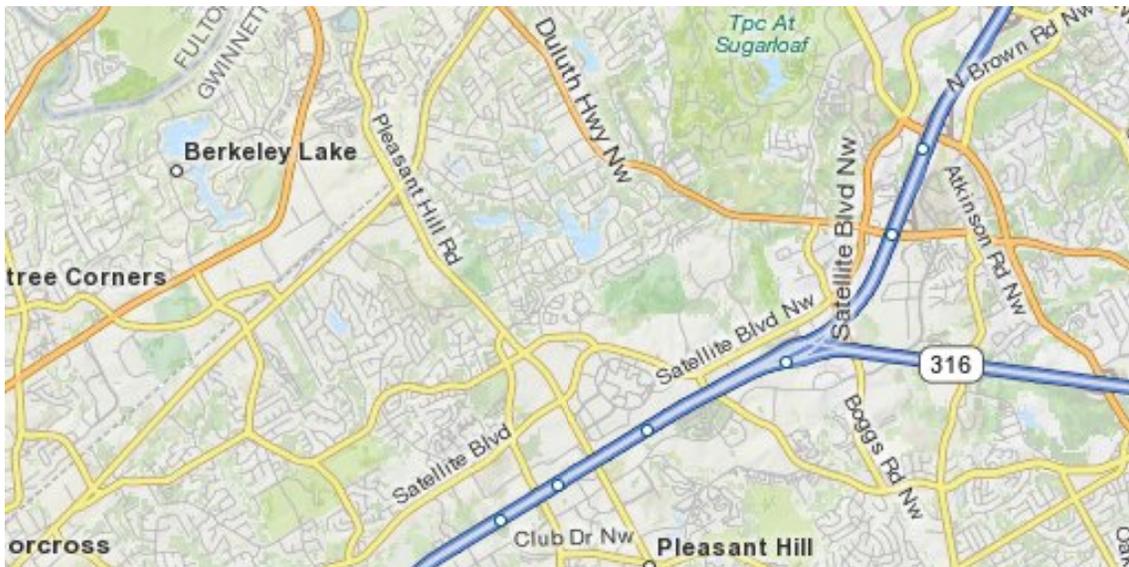
기독교나라인 미국에서 불교의 현실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런만큼 더더욱 굳건해진 신심으로 겨울의 칼바람을 굳건히 버티는 인동초처럼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모이고 있는 걸 느낍니다. 우리 이 부다나라호가 잘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금과 같은 관심과 애정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때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미국 애틀랜타에서 무영 김동하 거사 합장

2009 년 12 월 애틀랜타 부다나라 (불국사) 정기 법회부터는 법회 장소가 다시 바뀝니다.

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Class Room #5 에서 열립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12월부터 새로운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Class Room # 5 입니다.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12월법회는 송년법회라 10시부터 2시까지: 1부 법회, 2부 송년파티 및 성불도놀이)를 가집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매달 2째주 일요일마다 갖는 애틀랜타 부다나라 정기법회 이외에도 신도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도님 집에서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회시간에 공지하겠습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미국은 12월 21일이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고 한국에서는 12월 22일이 일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부다나라 (불국사)에서는 감기와 신종 플루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약한 저항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 12월 셋째주 일요일인 12월 20일 오전 11시에 부처님 전에 동지 기도 및 팔죽 공양을 합니다. 모두들 동지 기도에 참석도 하시고 맛있는 팔죽도 드셔서 몸과 마음과 뜻이 바르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 12월 10일 목요일 St. Louis 지역에 있는 Community Alternative Center 에서 부다나라 주지 선각스님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 30에서 12시까지 Desert Training : Marriage and Family 가 있습니다. 스님은 세미나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결혼관과 가족관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 애틀랜타 부다나라 법회에서 굿은일 마다얏고 신심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 무영 김동하 법우님이 이번에 재미 한국불교 장학회 (Korean American Buddhist Scholarship Foundation)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재미 한국불교장학회는 최무직 회장이 창설한 장학회인데 2009년에는 10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0 은 12월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때 수여 합니다. 모두들 축하해 주십시오.
- 2010년 1월 22일은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성도제일입니다. 부다나라에서는 성도제일을 기념해서 부처님처럼 6년간 용맹정진을 할 수는 없지만 하루라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용맹정진을 합니다. 1월 16일 토요일 저녁에 용맹정진을 자정까지 하고 다음날인 1월 셋째주 법회에는 모두가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고 법명을 받는 수계식이 있습니다.
- 2010년도 달력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근교나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을 제외한 타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미주리주 지역과 조지아주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에게는 법회중에 배포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96번 진주유인 이정자 영가 (이법도 복위), 491번 Mark Marikos 인등기도 동참을 기다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이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한 평 불사: 정강자 영가 (행효자 황현식 복위)

2010년 달력 불사 (필요 예산: \$1,000.00): 문수지 권효정 \$250.00, 인법 김종환 \$100.00, 무량화 문봉순 \$100.00, 청운화 Woojin Robinson \$50.00, 안재현 \$50.00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팀장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